



동국대동창회보

발행인 元容璇
편집인 宋在晩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The Dongguk Alumni News / <http://dongguk.or.kr>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우의 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2007년(단기 4340년) 2월 1일 제207호

은행지로번호 7500891

11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 Tel. 02)733-3991/3 · Fax. 02)733-3992 · 년회비:2만원

2007 丁亥年, 東國 · 東國人

새로운 100년의 꿈 찾아 떠나다



▲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는 원용선 회장.



▲ 작은 사진 (左)자랑스러운 동국인 상을 수상한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대신해 수상하고 있는 부인 김분희씨. (中)동국청우상을 수상한 박영석 동문. (右)공로패를 수상한 동문들.

“도전과 변화로 동국발전 이끌자”

정해년 신년교례회 성황



▲ 좌측부터 구자선 부회장, 송석환 수석부회장, 유인학 지도위원, 김희형 부회장, 김유복 고문, 원용선 회장, 박영식 부회장, 오진모 부회장, 박태권 부회장.

2007년 정해년 회장단 신년교례회가 지난 1월 16일 장충동소재 앰배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원용선 회장과 김유복(47/51정치·국제로타리 로타리 코리아 위원장)·윤일균(67.3/69.2행원·(사)한국항공기술협회 고문)고문 등 8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용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총동창회는 중단없는 도전정신으로 동국발전을 위한 지혜를 총동원하고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열려있다’는 말처럼 본회는 우리가 진정 바라던 것들, 동창회의 내실을 충실히 하고, 동문들로 하여금 동창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흠어진 동문들 간의 마음을 추스려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는, 이러한 변화들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또 원 회장은 “우리는 동문들의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재원의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며 “비록 지금의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늘 희망과 좌절,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해 왔고, 우리 동국인은 예로부터 기회는 살리고 위기는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균형을 유지

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회장은 2003년 발족한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2006년까지 모금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회관건립의 토대와 기틀을 세우는데 많은 공헌과 봉사를 해준 장동락(70/77정의·JNK나노산업(주) 대표이사/회장·본회 부회장)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에 장동락 동문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집행부가 새롭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 모금위원장 직을 사퇴한다”며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통장 등 모든 서류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동국발전을 기원하며 행한 케익커팅에 이어 김유복 고문의 우렁찬 건배제의로 시작된 만찬에서 참석 동문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힘차게 2007년을 맞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신년회에는 한의과대학 동문회 이상택(82/91한의·제중한의원 원장)회장과 김현수(79/90한의·강추한의원 원장)신임회장, 정주화(81/87한의·울한의원 원장)前 회장, 정인채(80/86한의·성동한의원 원장)동문 등이 참석해 앞으로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한의과대학동문회가 주도적으로 지원과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전통 만들어야”

화합과 단결로 하나된 2006동국인의 밤



‘2006 동국인의 밤(제35회)’이 작년 12월 14일 오후 7시 앰배서더호텔에서 원용선 회장과 이민휘(52/56정치)고문, 황갑순(49/52정치)고문 등 4백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회 송재만(65/69수학)사무처장의 사회로 △개회 △삼귀의례 △국민의례 △축하패·공로패 수여 △회장 인사 △축사 △사홍서원 △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은 한 해 동안 사회 전반에서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서 올해는 강원도지사 김진선(71/74행정·본회 부회장) 동문이 수상했다.

김 동문은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2006년 치러졌던 5.31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당선, 전국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바 있다. 이날 수상은 부인 김분희 씨가 대신했다.

또한 영전·취임 등으로 동국을 빛낸 구자선(79.9/81.8경원·조계종 제18회 포교대상시상식에서 공로상(총무원장상)수상)동문 외 11명에게 축하패를, 동창회 발전과 동문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강종영(60/65행정)동문 외 44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해 참석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청우 최재구선생추모사업회가 고인의 각 분야에 걸친 활약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동국청우상’은 산악인 박영석(83/91체육)동문이 수상했

다. 그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천m이상 고봉14좌 세계최단기간 등정과 7대륙 최고봉 완등, 3극점 도전에 모두 성공하는 산악 그랜드슬램의 대기록을 세우며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원용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2006 병술년 한해 동안, 동국인의 굳센 결의로 개인적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동국정신을 빛내주신 20만 동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행동으로 인생에서 추구하는 바는 달릴 수 있어도, 우리 20만 동국인 모두는 동국발전에 대해서는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회장은 “학교와 재단, 동창회는 삼위일체가 되어,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본 총동창회는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는 본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임하는 한편, 본회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민(77/85토목·코리아이벤트 대표) 동문의 사회로 문을 연 연회에서는 초청 연예인들의 가무와 행운상복추첨 등을 통해 동문간의 우의와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20만 동국인의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다가올 2007년을 계획하는 만남의 장으로 승화되었다.

2006 동국인의 밤 패 수상 동문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김진선(71/74행정)=강원도지사로서 강원도의 위상 강화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축하패

- ▲구자선(79.9/81.8경원)=조계종 제18회 포교대상시상식에서 공로상(총무원장상) 수상
- ▲김기태(96경원)=서울시 중구의회 의원에 재당선
- ▲김만규(73/77경제)=육군 장군으로 진급(준장)
- ▲김영성(77/84경행)=제61주년 경찰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김진억(73/80경영)=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
- ▲김학용(71/80체육)=제61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 대륙간배 야구대회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출전
- ▲김환(65상학)=인천시 중구의회 부의장에 취임
- ▲박병훈(85/92일문)=경상북도의회 도의원에 당선
- ▲신찬섭(70/74경행)=제61주년 경찰의 날 녹조근정훈장 수상
- ▲장경훈(64/68경영)=대구시의회 의장 취임
- ▲정동일(01/05경영)=서울시

중구청장에 당선
▲홍영기(74/81경행)=서울지방경찰청 청장에 취임

공로패

- ▲강종영(60/65행정)
- ▲구현교(98사원)
- ▲김달억(70/74식공)
- ▲김문환(63/71응생)
- ▲김민수(87/91정의)
- ▲김병건(83/85행원)
- ▲김상길(00/01사원)
- ▲김영길(95.9/97.8불원)
- ▲문준수(69/74인철)
- ▲박고홍(64/68불교)
- ▲박동인(59/65법학)
- ▲박순오(59/63응생)

- ▲박영호(64/72경행)
- ▲박태현(66/70경영)
- ▲백중수(61/67생물)
- ▲변학환(64/68영문)
- ▲서석영(99/01사원)
- ▲서해운(73/77체육)
- ▲손근호(53/57국문)
- ▲송귀순(00/01사원)
- ▲신관호(69/73경제)
- ▲심경모(57/61영문)
- ▲안명식(62/71식공)
- ▲양경직(65/69농경)
- ▲양성호(72/79경행)
- ▲염운용(58/64법학)
- ▲오정일(76행원)
- ▲육기동(61/65식공)
- ▲윤관욱(73/77화공)

- ▲윤혜영(73/77국교)
- ▲이걸구(85경원)
- ▲이규현(85한의)
- ▲이상웅(67/71입학)
- ▲이상호(90/94경영)
- ▲이성규(74/81경행)
- ▲이영구(64/68불교)
- ▲이영해(사원 재중)
- ▲이현중(57/61영문)
- ▲조석규(68/72토목)
- ▲조희재(63/67식공)
- ▲주기상(99문원)
- ▲허천택(56/61영문)
- ▲홍성영(65/69입학)
- ▲박재준(안전공학과 4년)
- ▲정형주(통계학과 4년)

모교 제16대 총장에 오영교씨 선출



모교 제16대 총장에 오영교 前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출됐다.

오영교 총장 내정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산업자원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공기업 고객만족도 최하위였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시절, 전직원 연봉제와 목표관리제(MBO), 다면평가제 등을 도입해 최우수 공기업으로 변모시킨 바 있다. 또한 행자부 장관 재임 시절에는 공직사

회에 최초로 팀제를 도입하는 등, '혁신'을 강조하며 이를 현실화 해 '혁신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오 총장 내정자는 "동국대학교는 100년의 유구한 역사, 유리한 지리적 입지, 사회 각계각층의 20여만 동문, 그리고 구성원들이 모두 학교의 발전에 대해 한결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열린 리더십과 시스템 경영을 통해 고객과 성과중심의 경영, 비전과 목표의 명확한 제시를 통하여 동국 가족이 하나되는 동국의 혼 정립,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을 펼치고 대화와 설득이 함께하는 유쾌한 혁신의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발전의 토대는 재정에 있으므로 이를 확충하는데 동분서주할 것이며, 앞으로 108일 프로젝트를 통해 동국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오 총장 내정자는 대전 보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수원동문회 모교 발전기금 1억원 전달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홍기삼 총장과 함께 기념촬영.



▲김용구회장과 홍기삼총장 ▲2007년 신년하례회

수원동문회(회장=김용구·70/74농경·경기청과(주) 부회장·본회 상무이사)가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2백88만원을 모금, 작년 11월 2일 홍기삼 총장에게 전달했다. 수원동문회는 모교가 역사적인 건학 100주년을 맞아 신 인재 육성을 위한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연말 모임에서 발전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발전기금 조성은 1억원을 목표로 김용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모교에서 보내온 홍보물을 동문들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학교 발전은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후배들을 후원하는 데 있는 만큼 수원동문회가 앞장서서 후배사랑을 실천하자"며 모금운동을 벌여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수원동문회 발전기금 동참자는 아래와 같다.(괄호안은 학과 및 입학년도)

- ▲김용구(농경 70)=1,080만원 ▲류찬희(농경 70)=5천만원 ▲박봉준(경제 77)=1천만원 ▲최성호(법학 81)=3백만원 ▲강병국(농경 63)=2백만원 ▲김기일(법학

- 83)=2백만원 ▲이무석(국문 81)=1백50만원 ▲안명식(식공 62)=1백만원 ▲박영길(화학 62)=1백만원 ▲김태홍(농학 64)=1백만원 ▲차득규(농학 64)=1백만원 ▲강길구(식공 64)=1백만원 ▲안세영(화학 64)=1백만원 ▲홍성영(임학 65)=1백만원 ▲이희상(법학 65)=1백만원 ▲이상웅(임학 66)=1백만원 ▲윤명준(행정 66)=1백만원 ▲김상인(농경 67)=1백만원 ▲정관희(통계 68)=1백만원 ▲이동수(임학 69)=1백만원 ▲조병로(사학 72)=1백만원 ▲장동호(수교 72)=1백만원 ▲오정석(농학 72)=1백만원 ▲김희찬(인철 73)=1백8만원 ▲이석태(국문 77)=1백만원 ▲우왕기(수교 78)=1백만원 ▲한도석(전자 78)=1백만원 ▲손세호(한의 80)=1백만원 ▲황영(정의 85)=1백만원 ▲이용호(한의 87)=1백만원 ▲이상일(식공 67)=50만원 [합계 1억2백88만원]

한편, 수원동문회는 지난 1월 19일 수원한사랑웨딩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홍기삼 총장 은관문화훈장 수훈



홍기삼 총장이 2006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은관문화훈장 서훈자에 선정돼, 작년 10월 20일 수훈했다. 은관문화훈장은 직책과 관련없이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운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이에게는 최고 수준의 문화훈장이다.

올해 서훈대상자는 전국의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의 심의·선정을 거쳐 정부 공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홍기삼 총장은 지난 1월 2일 시무식에서 "작년 한해는 우리 대학의 거룩한 사명을 생각하며 함께 고심하고 분발한 한해였으며, 100년 전통에 대한 긍지가 유난히도 고왔던 연등의 불빛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힌 한해"라며 "교육, 연구, 행정 부문에서 힘써 이룩한 개선을 바탕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밝은 전망을 가지고 건학101주년 업무 첫날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발전기금 1억5천만원 기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이 작년 11월 2일 모교발전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3번째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작년 총 5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기금은 모교 종비장학생 수행관 건립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송래섭 동문 후배사랑장학금 1천만원 전달



식품공학과 송래섭((주)바산허브 회 해 후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장·70/73식공)동문이 작년 11월 3일 학교를 방문하여 김병식 부총장에게 후배사랑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식품공학과동문회 장영상 회장(중부대 교수)도 함께 자리하였으며, 송 동문은 "모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데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

대전-충남동문회 1천만원 기탁



대전-충남동문회(회장=한상익·67/74경행·충남경찰청·본회 상무이

사)가 작년 11월 6일 모교를 방문해 홍기삼 총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

동문들을 대표해 기부금을 전달한 금기홍(77/81건축·홍우건설(주) 대표이사)사무국장은 "모교 건학100주년 기념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대전-충남지역동문회의 성의를 알리지는 동문들의 뜻을 모아 오늘 우선 1천만원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기부의 취지를 밝혔다.

유현목 동문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올라



▲유현목 동문

한국 영화계의 거목 유현목(46/49문학·영화감독·분회 지도위원)동문이 2006년부터 선정된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두 감독의 명예의 전당 입성은 원로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한 120여 명의 영화인에게 헌액 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다. 유현목 감독은 '위대한 영화감독' 부문에, 고신상옥 감독은 '위대한 영화인' 부문에서 각각 선정됐다.

영화인복지재단은 작년 7월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영화인 명예의 전당 개관 및 흉상 헌액 기념식과 더불어 두 감독의 영상물 상영 등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유현목 동문이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스트라스부르그, 리옹 등 세 곳에서 열린 2006 국제영화제에서 모두 회고전 주인공으로 초대됐다. 회고

전에는 '오발탄'(1961), '사람의 아들'(1980), '장미'(1979), '김약국의 딸들'(1963), '수학여행'(1969), '순교자'(1965), '말미잘'(1994) 등 7편의 대표작이 상영됐다.

이번 유 감독의 회고전은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유 감독은 부인 박근자(74) 화백과 함께 출국했다. 유 감독은 "이번이 마지막 해외영화제 방문일 것 같아 긴 여정이지만 나가기로 했다"며 "영화의 종주국인 프랑스 방문인데다 리옹은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의 꿈을 키운 곳이라 내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나들이"라며 미소지었다.

1956년 '교차로'로 데뷔한 유 감독은 감독과 제작자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이번 회고전에 소개된 작품 외에도 '입격정'(1961), '성웅 이순신'(1962), '카인의 후예'(1968), '춘몽'(1965), '분례기'(1971) 등의 작품들로 사랑받았으며, 제작자로서는 '로보트 태권브이' 시리즈 등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문화대종상(1978), 문화훈장(1988), 대중상 공로상(1995), 부산영화평론가협회 특별공로상(2003) 등을 수상했다.

박충일 신흥P&P(주) 회장 별세

'한국인쇄문화·불교 발전에 공로 지대'



▲故 박충일 동문

'직지운동'의 대부로 통했던 박충일(56/62법학·신흥P&P(주)대표이사 회장·본회 부회장)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이 작년 11월 1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명함에 '법국민직지회장'이란 명칭을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녔고, '직지 탄생일(8월 19일)'을 선포할 정도로 '직지 사랑'이 남달랐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심경'에 대한 자긍심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직지운동'은 흔히 직지심경으로 불리는 '불조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된 장소인 청주 흥덕사지에 1992년 3월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세워지면서 본격화돼 약 10년 만인 2001년 직지심경이 승정원일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경남 거창 출신인 고인은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한국인쇄문화원장 등을 맡아 한국 인쇄문화 발달에 큰 족적을 남겼으며, '불교신문'의 폐간 위기를 막아내는 등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으로서 한국 불교 발전에 끼친 공로도 지대하다.

50년 인쇄 외길을 걸어온 고인은 철탑산업훈장, 올림픽기장, 서울시문화상, 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영결식은 11월 5일 파주 신흥인쇄(주)에서 진행됐으며, 충북 음성군 대지공원 묘지에 묻혔다.

경찰인사 (총경급 이상)

치안정감

- ▲강희락(04.2/행원)=본청 차장
- ▲어청수(73/80경행(11기))=경찰대학장
- ▲홍영기(74/81경행(12기))=서울청장

치안감

- ▲김남성(75/82경행(13기))=본청 생활안전국장
- ▲박기륜(75/82경행(13기))=본청 외사국장
- ▲윤재욱(일원 박사과정(경행))=중앙학교장
- ▲조용연(72/79경행(10기))=충남청장

경무관

- ▲김길배(73/80경행(11기))=서울청 교통지도부장
- ▲김종양(일원(경행))=LA주재관
- ▲남형수(71/75 경행(9기))=본청 감사관
- ▲박수현(77/81 경행(13기))=본청 외사관리관실
- ▲박웅규(95 행원)=광주청 차장
- ▲박진현(96/00일원(경행))=경찰대 교수부장
- ▲박천화(73/80경행(11기))=인천청 차장
- ▲서천호(02행원)=경남청 차장
- ▲손창원(77 경행(11기))=경기청 3부장
- ▲양성철(73/80경행(11기))=전남청 차장
- ▲이강덕(행원)=경북청 차장
- ▲이성규(78 경행(12기))=장관직인정책관
- ▲임승택(78 경행(12기))=서울청 기동단장
- ▲채한철(76/83경행(14기))=본청 교통관리관
- ▲최광화(72/79경행(10기))=충남청 차장
- ▲최병민(94/97 행원)=경기청 1부장
- ▲최원태(00행원)=충북청 차장

총 경

- ▲강성복(77/84경행(15기))=본청 대테러센터장
- ▲강성채(79/83 경행(17기))=경기 시흥서장
- ▲강현신(77/81경행(15기))=전북 정읍서장
- ▲구본걸(74/81경행(12기))=경기 용인서장
- ▲구은수(78/85경행(16기))=서울 종로서장
- ▲김경수(71경행(5기))=충북 청주흥덕서장
- ▲김상근(71/77경행(11기))=대구 남부서장
- ▲김상운(78/85경행(16기))=강원청 경비교통과장
- ▲김석구(91행원)=부산청 보안과장
- ▲김성권(76/83경행(14기))=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 ▲김성근(77/81경행(15기))=전북 장수서장
- ▲김성렬(74/78 경행(12기))=경기 광주서장
- ▲김성배(84/86 행원)=대구 서부서장
- ▲김영성(77/81경행(15기))=충남 당진서장
- ▲김영호(72경행(6기))=인천청 홍보담당관
- ▲김운선(73/80경행(11기))=경기 수원중부서장
- ▲김인택(75/79경행(13기))=본청 보안1과장
- ▲김창용(79/83경행(17기))=충남 연기서장
- ▲나유인(77/81경행(15기))=전북 전주완산서장
- ▲남택화(79/83경행(17기))=서울청 경무과(교육)
- ▲박광순(75/82 경행(13기))=경기청 경무과(교육)
- ▲박병국(95/02일원(경행))=서울청 보안1과장
- ▲박외병(01/04행원)=경기청 경무과(주재관 요원)
- ▲박종국(73/81경행(11기))=충남 서산서장
- ▲박중수(03/행원)=강원청 정보통신담당관
- ▲박중환(71/78경행(9기))=충남 대전북부서장
- ▲박창규(73/77경행(11기))=서울 양천서장
- ▲배위환(88행원)=경북 군위서장(경정)
- ▲배효갑(94/95행원)=강원 인제서장
- ▲백동산(73/77경행(11기))=서울청 국회경비대장

- ▲손호중(93행원)=강원청 정보과장
- ▲신동건(73/81경행(11기))=부산 금정서장
- ▲신동근(73/77경행(11기))=인천 연수서장
- ▲신동호(74/81경행(12기))=서울청 경무과(교육)
- ▲신두호(90행원)=서울청 경비1과장
- ▲신상석(78/85경행(16기))=경기청 경비과장
- ▲신용선(73/77경행(11기))=서울청 교통안전과장
- ▲신정배(73/77경행(11기))=경기 의정부서장
- ▲신찬섭(70/74경행(8기))=충남청 경비교통과장
- ▲심상인(66/70경행(4기))=충북 음성서장
- ▲심수식(94.8행원)=울산 서부서장
- ▲안억진(67/71경행(5기))=충남 아산서장
- ▲양두환(75/79경행(13기))=부산청 수사과장
- ▲엄용홍(75/82경행(13기))=서울 금천서장
- ▲우희주(02/04행원)=경기 이천서장
- ▲유현철(78/82경행(16기))=충남청 정보통신담당관
- ▲윤대표(72/76경행(10기))=서울청 교통관리과장
- ▲윤동길(73/77경행(11기))=전남 화순서장
- ▲윤종기(79/83경행(17기))=서울청 경비2과장
- ▲윤창수(76/83경행(14기))=경남청 홍보담당관
- ▲윤철규(78/82 경행(16기))=서울청 101부단장
- ▲이강순(77/81경행(15기))=경기 수원남부서장
- ▲이광영(66/70경행(4기))=경북 안동서장
- ▲이금형(행원)=본청 여성청소년과장
- ▲이봉행(일원(경행))=본청 호주주재관
- ▲이상로(82/89경행(20기))=충남청 청문감사담당관
- ▲이상원(77/81경행(15기))=인천청 정보통신담당관
- ▲이승길(78/82경행(16기))=전북청 정보과장
- ▲이익하(69/73법학)=충남청(대전청 개청준비)
- ▲이재원(79/86경행(17기))=강원 삼척서장
- ▲이재원(74/81경행(12기))=경기청 홍보담당관
- ▲이종복(80행원)=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
- ▲이종원(75/79경행(13기))=충남청 정보과장
- ▲이진구(일원(경행))=서울청 경무과장

- ▲이태선(69/73경행(7기))=경북청 보안과장
- ▲이평오(75/79경행(13기))=전북 순창서장
- ▲이한명(72/76경행(10기))=경기 연천서장
- ▲이한일(79/86경행(17기))=경기청 경무과장
- ▲이환섭(71/75경행(9기))=인천 남동서장
- ▲임국빈(78/85경행(16기))=서울청 생활질서과장
- ▲임병하(71/79경행(9기))=충남청(대전청 개청준비)
- ▲장전배(98/00일원)=본청 경비과장
- ▲전병용(77/84경행(15기))=서울청
- ▲전석종(77/81경행(15기))=서울 혜화서장
- ▲전창학(79/83경행(17기))=부산청 정보통신담당관
- ▲정순도(74/81경행(12기))=본청 감사담당관
- ▲정은식(00/03행원)=경북 영천서장
- ▲정해룡(78/82경행(16기))=서울청 수사과장
- ▲조규철(76/83경행(14기))=서울 방배서장
- ▲조기준(73/77식공)=경남청 경무과(교육)
- ▲조정래(01행원)=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 ▲진정현(76경행(10기))=인천청 보안과장
- ▲최성철(72/76경행(10기))=경기 안산서장
- ▲최원일(78/82경행(16기))=경기청 수사과장(4부)
- ▲최종덕(75/79경행(13기))=서울청 인사교육과장
- ▲최해영(79/83경행(17기))=서울청 경무과(교육)
- ▲최현택(02일원)=서울 수사서장
- ▲편선재(66/70경행(4기))=경북 울릉서장(경정)
- ▲한기욱(67/71경행(5기))=강원 홍천서장
- ▲한달우(01행원)=충남 천안서장
- ▲허남석(96/98.2행원(59기))=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
- ▲허영범(78/85경행(16기))=본청 특수수사과장
- ▲홍영화(82행원)=서울청 경무과(교육)
- ▲홍익태(78/82경행(16기))=서울청 외사과장
- ▲황덕규(77/85경행(15기))=강원청 청문감사담당관
- ▲황성모(74/78경행(12기))=서울 혜화경찰서 형사과장
- ▲황성채(91/94행원)=경기 군포서장

同門동정

본사의 근황이나 주위 동문들의 여러 소식 등을 언제나라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하례법회 봉행



▲ 지 관 (70.3/76.8일 원·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분회 고문)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월 17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퇴계학 국제학술대회



▲ 김 상 훈 (55/59국문·퇴계학부산연구원 원장·분회 부회장) 동문은 작년 10월 18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제19회 한일중 퇴계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청년학생운동자의 밤



▲ 신 승 길 (58/63경제·한국학생운동자협의회 사무총장·분회 부회장) 동문은 작년 12월 5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제41주년 청년학생운동자의 밤'을 열었다.

서울문화사학회 학술대회



▲ 이 상 진 (62/71정의·서울문화사학회 회장·분회 부회장) 동문은 작년 11월 17일 300여명의 내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서울문화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열었다.

국방대학교 부이사관



▲ 김 수 창 (65/69불교·국방대학교 부이사관·분회 이사) 동문은 최근 국방대학교 부이사관으로 발령돼 국외교류협력관을 맡고 있다.

한국ROTC8기 총동기회장

▲ 김대식(66/70통계·(주)하이큐스 대표이사·분회 상무



이사) 동문은 작년 12월 7일 육군회관에서 대한민국 ROTC8기총동기회 회장에 취임했다.

서민연합회 송년의 밤



▲ 최 윤 섭 (68/72수학·한국서민연합회 상임대표·(주)후림 회장·분회 분과 위원장) 동문은 작년 12월 28일 대학로 흥사단 3층에서 '한국서민연합회 정기총회와 송년의 밤' 및 '올해의 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 해 총 스 님 (69/72불교·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분회 지도 위원)은 작년 11월 23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5대 포교원장에 선출됐다.

농협중앙회 상무



▲ 박 철 현 (69/73경제·농협중앙회 상무·분회 이사) 동문은 지난 1월 2일 농협중앙회 상무로 승진됐다.

육군 장군으로 진급



▲ 김 만 규 (73/77경제·ROTC 15기) 동문이 작년 11월 4일 육군 장군으로 진급됐다. 이로서 동국대 ROTC는 김행남(61/65정의·ROTC 3기) 동문을 비롯해 6명의 장군을 배출한 학군단의 명문으로 자리잡았다.

세종관세사무소 개소



▲ 김 정 환 (75.3/77.2경원·관세사·분회 이사) 동문은 작년 12월 1일 인천시 국제공항화물터미널에서 세

종관세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C동 운송대리점동 214호, 032)742-8620)

논산훈련소 29연대장

▲ 김성진(79/83무역) 동문은 작년 11월 13일 대령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논산 신병훈련소 29연대장으로 취임하여 연병장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



▲ 구 자 선 (79.9/81.8경원·(주)자연과 사람 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분회 부회장) 동문은 작년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조계종 포교원 주재로 열린 제18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인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투자 사업설명회



▲ 김 종 찬 (82/90교육·씨네우드 엔터테인먼트 (주) 대표이사·분회 이사) 동문은 작년 12월 18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투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병원 신축 개원



▲ 박 진 령 (82/88한의·세정한의의원 원장·분회 이사) 동문은 작년 12월 23일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세정한의원에서 병원 신축 개원식을 가졌다.

후원의 밤 및 송년모임



▲ 최 재 성 (84/93불교·국회의원·분회 부회장) 동문은 작년 12월 14일 '최재성의원 후원의 밤 및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덕소아카데미 합창단, 서울시스터즈, 밴드 나누리 등의 공연과 극단 사과나무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우들의 흥겨운 장기로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준 자리였다.

희수연 및 출판기념회

▲ 손현수(85.3/86.2행원·94.3/96.2불원·대현그룹 회

퇴임기념 논문집 봉정받아



▲ 유광진 교수



▲ 이상현 교수



▲ 서윤길 교수

▲ 유광진(60/64정의·모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분회 부회장)교수는 지난 1월 18일 센트럴웨딩컨벤션 체리홀에서, ▲ 이상현(64/68경행·모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분회 부회장)교수는 작년 10월 16일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 서윤길(64/68불교·모교 불교학과 교수·분회 상무이사)교수는 작년 11월 13일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자들로부터 정년퇴임기념 논문집을 봉정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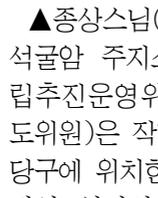
장·분회 부회장) 동문은 작년 12월 21일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손현수 회장 회수연 및 회고록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한국JC특우회 서울지구 회장



▲ 이창상(행원 38기·86.2행원) 동문은 작년 10월 25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사)한국JC특우회 2007년도 서울지구 제23대 회장에 취임했다.

석가사 점안식 법회



▲ 종상스님(86.3/88.2행원·석굴암 주지스님·석가사 건립추진운영위원장·분회 지도위원)은 작년 11월 25일 분당구에 위치한 석가사 대웅전에서 석가사 점안식 법회를 봉행했다.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상임고문



▲ 지 만 호 (87.3/94.2행원·(주)매일건강신문사 회장·분회 상무이사) 동문은 작년 10월 12일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상임고문에 위촉됐다. 이 단체는 통일부 지원하에 매년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편지 써 보내기 운동과 북한의 사회, 문화, 교육 등을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소개하여 통일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 이 두 철 (89.3/91.2사원·삼창기업(주) 대표이사 회장·울산상공회의소 회장·분회 부회장) 동문은 작년 12월 15일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라이트 마포연합 창립



▲ 최 창 운 (94.9/97.2일원·데이콤 국제전화사업팀 과장·뉴라이트 마포연합 창립준비위원장·분회 이사) 동문은 작년 11월 28일 마포구 소재 영빈웨딩홀에서 '뉴라이트 마포연합 창립대회'를 열었다.

송년의 밤 개최

▲ 최태인(96행원·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영남협의회 전국공동대표) 동문은 작년 12월 11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영남협의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초대전



▲ 성 각 스 님 (97.3/99.2예원·망운암 주지스님·분회 운영위원)은 작년 10월 29일 해운대 달맞이고개 NC 갤러리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각스님 특별초대전 그리고 '어느덧 내 모습은 산이 되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도덕성회복 · 자연환경 운동 필요

선진규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



▲선진규 동문

조계종 중앙신도회 선진규(55/59 불교·봉화산청 소년 수련 원장·전국노인위원장·분회 부회장)고문은 정해년에 가장 바라는 것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을 희망했다.

다음으로 꼽은 것은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이다. 불교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는 만큼 청소년포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선 고문의 주장이다.

"오랫동안 청소년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청소년 교육은 타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신앙에도 기복신앙 보다는 지력신앙이 건강하듯이 청소년 교육도 자율적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재가신행운동에 몸 바쳐온 선진규 동문은 연말연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불교계도 사회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여 온 이웃종교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신교는 50년 전부터 전 국토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전국 곳곳에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지 분야에 눈을 돌렸습니다. 개신교는 복지운동을 통해 대 사회이미지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 설립을 통해 이윤추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도 개신교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이웃종교 사회운동의 성공사례로 개신교의 전국토복음화 운동을 들었다.

선 고문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다"며 '멀리보기'와 '크게 생각하기'를 주문했다. 선 고문이 내다보는 청사진은 먼전 전국토정토화 운동을 통해 대승의 기치를 다시 세우

고, 이어 △도덕성회복운동 △자연환경운동 △평화통일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이다. 도덕불감증 시대에 불교는 윤리적 규범이 될 수 있고, 연기사상은 자연환경운동의 근간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게 선 고문의 전망이다.

또한, 평화통일운동은 불교계의 전 근대적인 이미지를 일소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신행포교의 문제점으로 선 고문은 도심포교와 응용포교의 활성화를 지적하면서 '생활이 곧 신행'이 될 수 있는 불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 고문은 이어 "재가운동을 위해서는 불교인재육성에 팔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이 새 시대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만큼 전국적인 규모의 불교환경단체가 설립돼야 할 것입니다.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실천하면 사회적 파장력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故 법장스님이 나서서 앞장섰던 생명나눔실천회는 미래를 예견한 몇 안되는 불교계 단체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불교계에도 새 시대 패러다임에 걸맞는, 시대와 행복하게 조우할 수 있는 단체가 보다는 많이 설립돼야 할 것입니다."

선 고문은 열린우리당 전국노인위원장답게 노인복지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노인복지 정책 입안에 총력을 기울였던 지난해에 이어 2007년에도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선 고문은 65세 이상 노인의 의치·보청기·안경 등의 보험처리와 전국 2천여개 노인대학 및 전국 노인정의 시설확충 등에 힘썼다.

정해년에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에 대해 선 고문은 "매년 2백80회의 강연을 가졌던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의 열정으로 응용포교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제탈공연예술촌 김흥우 총장



▲김흥우 동문

김 흥 우 (60/64연영·분회 상무이사)동문이 남해에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들어갔다. 김 동문이 40년간 수집해 온 귀중한 문화예술관련 소장품 일체를 남해로 가지고 간 것이다. 이들 소장품들은 국·내외 탈이 715점, 서적 1만6283권, 공연예술자료 7125점, 영상자료가 3만2419점이나 된다.

기증품 중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베트남, 네팔, 말레이시아 등 동양 탈과 페루, 멕시코 등 아메리카 대륙의 탈 등 국내외 탈을 비롯, 우리나라 초창기 및 현대의 배우 사진, 포스터 등 50년대 전후의 문화·예술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이 눈길을 끈다.

또 극작가 이광래 박동화 최정연의 육필원고와 박누월의 '영화 배우술', 김재철의 '조선 연극사', 김태준의 '조선 문학사' 등 고본을 비롯해 신파극, 여성극극대본, 1950년대 전후의 연극

대본, 이광래 이해랑의 연출대본도 포함돼 있다.

이 소장품들로 하여 남해군 이동면 옛 다초분교에 조성되는 것이 국제탈공연예술촌이다.

이 예술촌이 또 하나의 소중한 남해의 문화자산이자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임에 틀림없다.

총 42억8천여만원의 들여 건립 중인 '국제탈공연예술촌' 1층에는 전시장과 공연예술도서관 소공연장, 2층에는 탈박물관과 유명 배우들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예술공간으로 꾸며진다.

김흥우 동문은 "남해에 정착, 올해 개관될 국제탈공연예술촌의 총장을 맡아 국내외 공연예술인과 전국의 문예 지망생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지방문화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2004년에는 예총 예술문화상 대상(연극부문)을 수상한 김동문은 극단 신희 대표와 한국문인협회 희곡분과 회장, 학교극·청소년극연구회 회장, 한국연극교육학회 회장, 한국연극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가히 공연예술분야의 인간문화재라고 할만하다.

백한이 시인, WCP/WAAC몽골대회 참가 행촌문화상, 고려문학상 수상자에 시상



▲ 몽골 엔크바야르 대통령(사진 좌)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백한이 동문.

세계행촌문화예술아카데미 세계시인회(HWAAC) 회장인 백한이(95.3/97.2예원·분회 상무이사) 계관시인(사진 우 한복)과 이영호(생활문화회장), 도창회(수필분과회장)시인 등은 작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26차 세계문화예술아카데미 세계시인대회(WAAC/WCP)에 한국시인 30명(부산시인 17명)과 함께 WAAC 대표로 참가하여 주제논문 '서양사상의 태동(소크라테스)'을 발표하고 올해로 20번째인 '행촌문화상'과 두번째인 '고려문학상'을 시상했다.

'행촌문화상'에는 1985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 있는 카한(Ernesto Kahan)과

이번 몽골대회조직대회장 멘도우(G.Mend-Ooyo)씨가 수상했으며, '고려문학상'에는 한국문학에 열정을 보이는 WAAC 후견시인인 대만의 유시(Yu Hsi) 시인과 몽골 엘덴네 오칠(Arlaan Eredene Ochir)시인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몽골 엔크바야르(Mr. Nambaryn Enkhbayar, 사진 좌) 대통령은 대통령궁 홀에서 열린 이번 대회 개회식에 참가해 환영사를 하고 세계 30개국의 300여 시인들을 영빈관으로 초대해 환영하는 만찬자리에서 "시를 통한 형제애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이번 대회 주제처럼 시가 인류의 평화와 유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타스님 출판기념회, 평불협 후원의 밤 개최



▲법타스님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출판기념회 및 평불협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님의 법문집 '용서해야 사람이다' '길벗과의 대화' '매

일 만나는 부처님' 등의 법문집과 민족화해와 통일원력을 담은 '21세기를 맞는 오늘의 북한',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겨레의 섬 독도' '한국령 독도' '대마도는 한국 땅' 등의 저서가 소개됐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은 평불협이 운영하는 북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후원에 쓰인다.

한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작년 11월 14일 제4회 대원상 대상 수상자로 북한구호활동을 벌여온 법타스님을 선정해 시상했다.

애국지사 백룡 조용찬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묘비 제막식



▲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한 조규 동문(좌측에서 세번째)

애국지사 백룡 조용찬 선생 탄신 100주년을 기념한 묘비 제막식이 작년 10월 28일 경북 영천에서 열렸다. 조규(75.3/77.2경원·외교양행(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 수권유족은 인사말에서 “임시정부가 일제의 이간질로 중국에서도 외면당한 최악의 위기 때, 요

인들도 떠나버린 입장을 살리려고 중국을 오가며 구국투쟁을 하다가 대구은행 폭탄사건에 연루되어 2년 3개월의 극악 무도한 고문의 옥고를 당한 조재만(용찬) 애국지사의 열사 구국 절의를 기리기 위해 원로에

도 왕림하여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희수 영천지역 국회의원과 영천시의회 의장, 각급기관장, 라이온스협회 총재단, 신령향교 전교, 각지의 향우회장, 경영대학원동창회 회장단과 임원 등 내외귀빈 250여명이 참석했다.

혜동회 원로동문 송년모임



혜동회(회장=김영근·49문학·본회 지도위원)는 작년 12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영근 회장과 박영철(49문학·본회 지도위원), 황갑순(49/52정치·본회 고문)동문 등 40여명의 원로 동문과 원용선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하고 신입회장에 왕표순(49문학·송곡대학 학

장·본회 이사)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왕표순 신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혜동회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심없는 마음으로 선배들이 앞장서서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원로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essay

더불어사는 삶, 나누고 베풀고



▲ 김 양 일 (수필가, 본회 부회장)

이 선택해야 할 삶의 과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 각 개인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 자신답게 사는 일이 중요하다.

각자의 삶은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개인이나 사회나 인간관계로 엮인 하나의 고리다.

누가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들 모두 각자가 뿌리고 가꾸면서 인생의 열매를 거둔다.

또 사람은 저마다 그릇이 다르고 삶의 몫이 있기 때문에 남의 그릇을 넘겨다 볼 필요도 없이 각자 자기 삶의 몫을 챙기면 된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남의 몫을 가로채면 자기 몫마저 잃고 마는 것이 우주의 질서요 자연과 신의 섭리다.

세상에는 공짜도 거저 되는 일도 없다.

눈앞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따지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저마다 자신

공것과 황재가 있는 것 같지만 시작도 끝도 없이 흐르는 인간관계의 고리를 보면 매사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의 결과다.

인생에서 불로소득은 없다. 황재가 있으면 황액이 따르기 마련이다.

인간만사 새옹지마다. 사람의 앞날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다.

나는 사실 60여 평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단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법과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할 것이라고 고민한다. 그러면서 지혜와 베풀고 낮춤과 나눔과 기여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그것이 사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작가 알베르 카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를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느냐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동정과 이해심을 지니는 것, 자연스럽게 이웃을 돕는 일, 낮은 사람에 게도 너그러운 것,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일, 누구에게나 친절할 것, 부드럽고 정다운 말씨를 쓰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랑이며 베풀고 행복이 아니겠는가.

행복이란 마음이 편안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매사 인간관계에서 이웃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자비란 내것을 남에게 주고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자비의 삶, 그것이 곧 인생이 아닐까.

“새로운 화합과 참여로 동문회 활성화” 전북전주동문회 동국인의 밤



전북전주동문회(회장=육기동·61/65 식공·(주)팔마 대표·분회 상무이사)는 작년 12월 13일 전주관광호텔에서 7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인의 밤을 개최했다.

육기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화합, 새로운 동문들의 참여로 모교 101주년에는 101명 이상의 동문들이 참석하는 동문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진

정한 마음으로 동문들의 애·경사를 찾아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회장으로서 전북동문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삼룡 명예회장은 “건학 100주년은 한국의 역사에도 길이 남을 족적”이라며 육기동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2007년에는 더욱 많은 동문들이 함께하는 것을 독려했다.

중국 북경동문회 송년모임



중국 북경동문회(회장=임영호·70/78 행정·한국수출보험공사 북경사무소 소장)는 작년 12월 2일 북경천축향촌골프

장 클럽하우스에서 북경동문회 송년모임을 개최하고 분회에서 제작하여 보낸 중국총동문회 깃발 전달식을 가졌다.

법조인 송년회



법조인송년회가 작년 11월 29일 타워호텔 로즈룸에서 김동정(53/57법학·변호사·분회 부회장)동문과 원용선(59/63영문·(주)남양E&C 대표이사) 총동창회장, 홍기삼(62/66국문·분회 고문) 총장 등 30여명의 법조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용인동국가족 2007신년회’ 개최 특강과 민요배우기 등으로 활기차게 시작



용인동문회(회장=박만갑·64/68정의·세진건설(주) 회장·분회 부회장)는 지난 1월 19일 용인 풍덕천동 소재 대벌부패에서 ‘용인 동국가족 2007 신년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모교 분당한방

병원 침구과장인 조현석 박사를 모시고 ‘활성산소와 노화에 대하여’ 특강을 들었으며, 안진숙 한국경기소리보존회 용인지부장을 초청해 경기민요를 배우기도 했다.

| 단 신 |

■강서동문회(회장=윤택·61/66경제·분회 이사)는 작년 12월 11일 강서갈비집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하고 친목을 다졌다.

■고양시동문회(회장=최명재·57/61영문·안중근의사숭모회 사무국장·분회 상무이사)는 작년 12월 21일 현대에프레보 샤르르샤브샤브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광주동문회(회장=김기중·59/63상학·대성학원 이사장·분회 부회장)는 작년 12월 12일 광산동 소재 히딩크호텔에서 2006 동국인의 밤을 개최하고 동문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대구동문회(회장=홍기익·66/70경제·흥기산업(주) 대표이사)는 작년 12월 11일 대구 아미호텔에서 8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친목을 도

모했다.

■대전동문회(회장=한상익·67/74경행·충남지방경찰청·분회 상무이사)는 작년 12월 19일 유성 아드리아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7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부산동문회(회장=김상훈·55/59국문·前 부산일보 사장·분회 부회장)는 작년 12월 13일 황실예식장 2층 대회의장에서 2006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안산동문회(회장=이도련·65/69화학·탈런트·분회 상무이사)는 작년 12월 20일 송년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천안동문회(회장=김춘호·69/76전자·명전사 대표이사)는 작년 12월 18일 송년 모임을 갖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했다.

서초동문회 송년의 밤



서초동문회(회장=이광근·67/74통계·분회 부회장)는 작년 12월 28일 영덕집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경영대학원동문회 송년의 밤 성황 전 동문의 지원으로 16억4천여만원 기금 마련



경영대학원동문회(회장=김진문·92경원·신성약품(주) 대표이사 회장·분회 부회장)는 작년 12월 6일 신대방동 소재 공군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5백여명의 동문과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거행했다.

강운석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공로패 수여 ▲김진문 동문회장 인사말 ▲한진수 경영대학원장 축사 ▲송석구 前 총장 격려사 ▲하만장 명예회장 격려사 등의 1부 행사와, 연회, 행운권 추첨의 2부 행사로 진행됐다.

김진문 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송석구 전 총장님, 한진수 경영대학원장님, 김태홍·전창원 전 원장님들을 비롯한 교수님들을 귀빈으로 모시게 되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났다”고 말한 후 “항상 모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역대 회장님과 전 동문들의 적극적인 화합과 지원으로 16억4천여만원의 기금이 마련되었다”며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한진수 경영대학원장은 “지난 2

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문교부로부터 전문 경영대학원으로 승격되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 경영인을 배출할 수 있는 MBA과정은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후학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송석구 전 총장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불운, 불행을 증오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서 내가 이제까지 해온 나쁜 행동이 사라져 맑고 아름다운 행복한 순간이 뒀을 깨닫고 새해를 맞이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 중 그동안 2007년도부터 실시될 전문 경영대학원의 각종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등 모교 발전을 위해 공헌한 한진수 경영대학원장, 이영면 행정지원실장, 유제동 과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동문회 발전에 공헌한 이수복(13기) 부회장, 정연수(50기) 부회장, 조성호(51기) 부회장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의과대학동문회 김현수 신임회장 2007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열어



한의과대학동문회(회장=이상택·82/91한의·제중환의원 원장·분회 부회장)는 지난 1월 20일 오후 7시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제20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총동창회 원용선 회장, 동국대학교 이석현 의무원장, 동국7080 문한성·손인환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대한개원한의사협회의 최방섭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등의 귀빈과 이상택 한의과대학 동문회장을 비롯하여 1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2006년도 사업보고, 2006년도 회무 및 회계 보고, 감사보고 등에 이어 제12대 동문회장에 김현수(1기)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감사에는 임치유(1기), 장용호(3기) 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동문

회와 모교,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먼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공로패는 안종찬(3기), 윤병국(4기), 권건록(10기) 동문이 수상하였고, 총장 표창패는 권오규(2기), 최호정(3기) 동문이, 공로패는 이재은(9기), 한상훈(10기) 동문이 수상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동창회장 공로패는 정해도(6기), 김법진(7기), 김기만(7기), 김주영(7기), 김주성(11기) 동문이 각각 수상하였고 한의과대학 학장 공로패에는 김완하(3기), 이창우(9기) 동문이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공로패는 조현탁(1기), 박진령(4기) 동문이 수상하였으며, 대한개원한의사협회의 공로패는 박유환(2기), 손창수(3기) 동문이 수상했다.

사회과학대학원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신임회장에 김석만 동문 만장일치 선출



사회과학대학원동문회(회장=이두철·89.3/91.2사원·삼창기업(주) 대표이사 회장·울산상공회의소 회장·분회 부회장)는 작년 12월 22일 경주 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김석만(89.3/91.2사원·(주)신한종합건설 대표)동문을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했다.

김석만 신임회장은 울산상공회의소 14대, 15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주)신한종합건설 대표와 제12대 가락중앙청년회장 직을 맡고 있다.

김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이두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사회과학대학원장인 김선정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문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부는 작년 11월 23일 15대 신임회장에 이재환(20기) 동문이 취임했으며, 울산지부는 제19대 신임회장에 임성(20기) 동문이 취임했다.

불교학과동문회 권기종 신임회장 선출



▲권기종 신임회장

불교학과동문회(회장=성광, 권오현)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작년 12월 13일 엠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00여명의 동

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용표(69/78불교·모교 교수·분회 상무이사) 사무총장의 사회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자랑스러운 동문상에 한정섭 동문이 선정돼 권오현 회장이 시상했다. 한정섭(61/65불교) 동문은 금강선원 총재로 있으며, 몽골에 불교대학을 건립중이고 미국 하와이, 중국 청도, 일본 나가노에 불교통신대학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우리의 불교를 세계로 전파, 포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해원 스님의 감사보고에 이어

2006년도 결산보고, 2007년도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신임 재가 회장에는 권기종(60/64불교·모교 교수) 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출가회장은 권기종 신임회장과 스님들이 협의하여 추대하기로 했다.

경영전문대학원(MBA)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신청한 8개 대학 가운데 모교를 포함해 5개 대학이 예비 인가를 받았다. 모교의 MBA과정 정원은 170명으로 이번엔 선정된 대학 중에서 가장 많다. <MBA(주간) 40명, MBA(야간)100명 CO-MBA(야간) 30명>. 특히, 모교의 MBA에는 한국의 풍족한 문화 콘텐츠 토양 위에서 ‘문화경영’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계를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문화경영전문가과정(COMBA, 야간)’이 설치되어 있다.

ROTC동문회 손학중 신임회장 선출

“상부상조하는 동문회를 만들자”



ROTC동문회(회장=강병국·64/68농경·세교산업(주) 대표·분회 부회장)는 작년 11월 23일 육군회관에서 '2006년 정기총회 및 4기 임관 40주년·14기 임관 30주년 기념' 축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원용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유복 국제로타리 로타리코리아 위원장, 김병국 ROTC중앙회 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1기 동문에서부터 46기 후보생에 이르기까지 30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임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기총회에서는 2006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이어 예도 하에 입장한 4기·14기 동문에 대한 임관 기념행사가 펼쳐져 참석한 동문과 가족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으며, 후보생 장학금 전달식, 공로패 시상,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로부터의 발전기금 전달식 등이 이뤄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손학중(65/69농경·(주)성문산업 대표이사·분회 부회장)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후배 동문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ROTC 동문회를 최고의 친목 단체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상부상조하는 동문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으니 집행부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원용선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ROTC 동문들을 포함한 20만 동국인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본회는 원칙이 지켜지는 동창회를 만들어 본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회장은 “우리 사회의 핵심 리더 그룹인 우리 동국대학교 ROTC 총동문회가 더욱 더 화합하고 단결하여, 뛰어난 결집력으로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공경하는 ROTCian의 Network 정신이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신용보증기금동문회(회장=이범간·72/79경행·총청영업본부장)는 작년 12월 1일 태평로 소재 중식당에서 '2006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현 임원진에 대해 만장일치로 연임을 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주요 행사내용 및 회비 수입지출 내역 보고와 동문회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열린 2부 송년모임에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정담을 나누는 등 선후배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늦게까지 이어져 동국인의 자긍심과 정을 느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작년 10월 14일에는 청계산에서 추계등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식품공학과동문회 체육대회

동문초청 세미나 등 화합의 장으로



식품공학과동문회(회장=장영상·66/73식공·중부대학교 교수)는 작년 10월 17일 모교 원흥관 세미나실에서 동문과 재학생 및 대학원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공인(食工人)의 날'을 선포했다. 이날 육기동(61/64식공)동문은 '미래의 진로선택', 박용철(62/69식공·호전실업(주) 대표)동문은 '식공인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해 후배들에게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만해광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같이 모여 2인 3각 경기, 족구,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을 통해 선·후배간의 화합과 정을 함께 나누고 느꼈다.

재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모교와 학과 발전을 기원하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동문들은 내년 가을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물품협찬회사 : 무순)

▲해태제과(아이스크림 10 BOX, 쇼케이스, 과자 20 BOX) ▲하이트맥주(소주 5 BOX, 맥주 10 BOX) ▲농심(삼다수 7 BOX, 홍삼수 2 BOX, 카프리선 2 BOX, 스낵 5 BOX) ▲빙그레(요거트 6 BOX, 스낵 4 BOX) ▲우영인터내셔널(훈제치킨 3 BOX, 훈제닭다리 3 BOX, 소스 1 BOX) ▲대경햄(훈제족발 2 BOX, 모듬소세지 2 BOX) ▲동서식품(Frappucino 250ml, 8 BOX) ▲(주)보광훼미리마트(녹차 1 BOX, 이온음료 1 BOX) ▲풀무원(포기김치 2 BOX, 열무김치 1 BOX)

| 단 신 |

■ 교육대학원동문회(회장=구연식·87.9/90.2교원·은석초등학교 교장·분회 상무이사)는 작년 12월 12일 경남호텔 대연회실에서 동교인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 불교대학원동문회(회장=김성호·91.9/93.8불원·불교미술관 관장·분회 상무이사)는 작년 12월 6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송년법회를 가졌다.

■ 언론정보대학원동문회(회장=노웅래·99/02언원·국회의원)는 작년 12월 11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 행정대학원동문회(회장=현성스님·72.3/73.2행원·(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회장·(사)한국청소년학회 이사장·분회 지도위원)는 작년 12월 28일 모교 상록원 대연회장에서 동문의 밤을 개최했다.

■ 상학과동문회(회장=박도근·61/65상학·前 SK증권 사장·분회 부회장)는 작년 12월 14일 역삼동 샵브에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개최하고 단합된 힘으로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전력을 다짐했다.

■ 생물학과동문회(회장=이필구·65/72생물·대아직물 대표)는 작년

12월 19일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후배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동창회보 창간호 발간기념연도 같이 열렸다.

■ 영어영문학과동문회(회장=변학환·64/68영문·신흥대학 영어통역과 교수·분회 부회장)는 작년 12월 8일 충무로소재 대림정에서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열고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토목환경공학과동문회(회장=손문영·69/73토목·현대건설 토목사업부 상무·분회 이사)는 지난 1월 13일 모교 상록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년하례식을 겸해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결산보고와 공로패 증정, 임원진을 선출했다.

■ 동국대 야구동문회(회장=김성한·78/82체교·프로야구 기아 총감독·분회 이사)는 작년 12월 8일 모교 문화관 그릴에서 동국야구인의 밤을 개최했다.

■ 동심회(회장=송석환·64/68농경·동진기업(주) 회장·분회 수석부회장)는 작년 12월 7일레이크사이드 C.C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몽고식품 101년 한우물판 김만식 회장 신세대 입맛 겨냥 '복분자 간장' 등 출시

경상남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몽고식품 공장. 건물 입구에 '몽고식품 100주년'이라는 나무 현판이 걸려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고향이 마산인 김만식(59/63경영·본회 부회장)회장은 "평생을 간장 만들어 팔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말했다. 된장도 만들지만 이 회사 매출의 90%는 간장의 차지다.

이 회사는 1905년 마산 자산동에 설립됐다. '몽고식품'은 고려시대 몽고군이 일본 정벌을 위한 여몽 연합군을 편성해 마산에 주둔하면서 식수 조달

을 위해 판 우물인 '몽고정(蒙古井)' 물로 간장을 만든 데서 붙인 이름이다.

몽고식품은 '사먹는 간장'을 만드는 기업형 간장 제조회사의 원조 격이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생산된 간장은 11들이 용기 기준으로 4억병이 넘는다. 직원 100여 명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350억원. 안강수 이사는 "20% 정도의 시장점유율로 전국에서 2~3위를 다투고 있지만 식당 등 업소용 시장에서는 몽고간장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행에 따라 부침이 심한 식품 업계에서 100년 동안 장수한 비결은 무엇



▲ 몽고식품 창립 100주년 기념돌탑 앞에서 김만식 회장(가운데)과 김현승 사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위해"라고 외치고 있다.

일까?

김 회장은 "따로 경영비법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 거래업체와의 신뢰를 중시하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며 "전통 발효 식품의 한우물을 계속 팔 것"이라고 말했다.

입사 60년째인 강암석(83) 명예공장장을 비롯, 전체 직원의 20%가 20년 경력자다. 장기근속은 오랫동안 일관

된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이다.

몽고식품은 새로운 장수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까다로운 현대인의 입맛과 간장을 낮설어하는 신세대를 잡기 위해 고급 제품과 기능성

간장을 내놓고 있다.

지리산 복분자 원액을 첨가한 '복분자 간장'은 일반 제품보다 3배 정도 비싸다. '유자간장소스'는 회나 부침개를 먹을 때 찍어 먹는 용도다. 작년 5월부터는 오픈마켓(온라인 장터)을 통해서도 간장을 팔고 있다.

수도권과 해외 진출은 '향토기업'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이다.

이환용 원장 "고향 앞동산 재현하고파" 50억원 들여 식물원 개원



뒤늦게 한의사가 되려고 공부해 해 8수 만에 동국대학교 한의대에 합격했다. 그리고 한의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폐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자 "태양이 솟던 고향 앞동산이 생각나더라"고 했다. 그래서 그 폐돈을 몽땅 퍼부어 18만 평 짜리 식물원을 만들었다.

경기도 포천 명성산 평강식물원. 사내 이름은 이환용(85/91한의), 서울 평강한의원 원장이다.

재수, 삼수, 사수... 8수 만에 동국대 한의대에 입학했다. 85학번이다. 이 동문은 서울 노량진에 있는 독서실에서 살았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한의원을 열었다. "노량진 시절에 자주 찾아 뵈던 한복집 할머니께서 조그만 나무껍질을 내밀면서 이래요. '이게 코나무 껍질인

데, 달여 먹으면 비염이 낫는데. 이거 좀 구해줘'라고요." 나무 이름은 참느릅 나무였다. 어렵사리 구해줬더니 보름 뒤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제 밥 타는 냄새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된 후 이 동문은 이러저러하게 약을 지어 자기도 먹고 아들들에게도 먹이며 7년을 보낸 끝에 비염 치료약을 개발했다. 이름은 청비환.

소문이 나면서 계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문은 전셋집에 산다. 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두 아들을 외국에 보내며 "너희한테 들어갈 학비만큼 다른 아이들을 돕겠다"고 해마다 300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놓는다. 그리고 개발 와중에 사라져버린 고향 앞동산을 재현하겠다고 결심했다. 바로 식물원 건립이다. 아내를 유럽으로 식물관 견학 보내고 대학원에서 식물생태학 공

부까지 시켜가며 준비를 했다. 땅은 포천에 있는 골짜기 '우물목'을 골랐다.

8년 공사 끝에 2006년 여름 평강식물원(www.peacelandkorea.com)이 탄생했다. 들 어간 돈에 대해 이 동문은 입을 다물지 만, 식물원 직원은 "이거저거 합치면 한 50억원은 될 것"이라고 했다. 폐돈을 번 한의사가 전셋집을 못 벗어나는 이유다.

식물원에 너른 잔디광장과 고층습지 원, 백두산과 한라산 같은 고산지대 들 꽃이 있는 암석원 등 12개 정원이 있다. 한방을 응용한 요리를 내는 식당도 있 다. 산림청으로부터 "나라가 할 일을 개 인이 해줬다"며 감사패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연과 벗하며 살 방 법을 묻기 위해' 이곳을 찾기도 했다. "열매가 썩어야 그 씨가 퍼져 몇십 배 결실이 나는 거죠. 그 이치를 깨닫게 할 교육장을 만들고 싶어요" 이 동문은 "돈 퍼부은 거, 하나도 안 아깝다"고 했다.

가끔 앞동산에 태양이 솟으면 "멋지 다"고 감탄했지만, 아이는 가난했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아이는 지게 를 졌다. 초등학교 내내 그랬다. 퇴비에 벗단에, 땀감으로 짐을 바꿔가며 수십 리씩 지고 날랐는데, "사는 게 원래 그 런 줄 알았다"고 사내가 털어놓는다.

“양 · 한방 협진 · 최첨단 시설 · 최고 교수 · 의료진 갖춰”

국내 최초 양 · 한방 대학병원, 의사가 신뢰하는 병원으로 정착



▲이석현 원장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원장=이석현)이 질과 양에서 대학병원으로 완전히 위상을 정립했다.

개원 1주년을 맞은 작년 9월 동국대 일산병원은 외래환자 하루평균 1500명 선을 돌파한데 이어 입원환자 역시 가동 중인 400병상(양방 350병상, 한방 50병상)을 모두 채울 정도로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우선 10월 초에 10층 병동(100병상)을 오픈, 총 500병상을 가동하고 있다.

이석현 의무원장은 “이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국병원과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현재 외래 및 입원환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올해 중에 허가병상인 800병상을 모두 열어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수준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현재 월평균 500건이 넘는 수술 건수는 물론 수술내용 면에서도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만큼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의 수술환자는 당장 3차 의료기

관으로 지정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준높은 진료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만큼 최고의 교수진과 시설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국내 최초의 양한방 대학병원이자 최초의 불교병원으로 개원한 후 내시경 검사건수가 11,476건을 기록했고 이중 거의 절반인 45%의 환자에서 위암판정을 내렸으며 2005년 11월 말 문을 연 심장혈관센터의 조영술 및 중재술 시술도 217회를 기록했다.

또 2005년 7월 오픈한 복강경시술센터는 직장암환자에 복강경 시술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196례의 시술건수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절경센터는 지난 8월 11일에 디스크를 제외한 순수 관절환자만을 대상으로 시술 1천례를 돌파해 자축연을 열기도 했다.

특히 병원이 자랑하고 있는 분야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지금까지 5,474건을 기록, 지역 산부인과의원들의 파수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수술실적에 반영되어 총 4,250여회의 시술을 실시했으며 영상의학과에서 총 촬영건수도 124,423건으로 10만건을 가뿐히 넘어섰다.

이 원장은 이 같은 괄목할 만한 성적은 모두 훌륭한 교직원들과 재단 및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국대병원의 자랑

심장혈관센터



▲이명묵 센터소장

“심장혈관센터는 심장혈관내과, 흉부외과, 심장마취과 등 심장혈관분야의 전문의들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갖추어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환자 중심의 최상의 One stop 의료를 제공하는 특성화된 센터입니다”
우리나라 심장혈관계 최고의 권위자로서 동국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

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명묵 소장의 설명대로 심장혈관센터에서는 여러 의학 분야의 심장혈관계 질환의 전문의와 최첨단 의료장비를 동원하여 심혈관계의 위험인자의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의 관리를 통한 일차적 질병관리 및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진단 및 치료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의 입원진료, 그리고 입원치료 이후의 교육 및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이차적인 예방을 시행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통합적인 진료를 추구한다. 그럼으로써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수락 교수, ‘젊은 성형외과의사상’ 수상



▲어수락 교수

동국대 일산병원 성형외과 어수락 교수가 작년 11월 열린 대한성형외과학회 창립 40주년, 제61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성형외과의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우수한 해외논문발표와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2006년 처음 제정됐다.
어 교수는 다수의 국제 및 국내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의료계에서 이룬 성과를 인정받아, 영국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의 ‘IBC Top 100 Health Professionals, 2007’과 세계적인 과학 및 공학분야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7’에 등재될 예정이다.
현재 어 교수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임군일 교수, 차세대신기술 사업 선정



▲임군일 교수

연구로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 위탁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산업지원

부로부터 3년간 2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수혜 받게 됐다.
임교수는 ‘간염줄기세포의 분화와 관련된 연구’로 2006년도 기초연구지원과제로 선정되어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3년간 1억2000만원의 연구비도 지원 받는다.
임교수는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미국정형외과연구학회, 국제정형외과 및 외상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건강증진센터



64slice MD-CT



정성어린 회비 감사드립니다

본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회비는 총동창회 발전과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기간 : 임 원=2006년 3월 1일 ~ 2007년 1월 29일
회비 납부기간 : 일반회원=2006년 10월 12일 ~ 2007년 1월 29일



1. 회비명단은 가나다순.
2. 회비납부시 성명, 졸업년도·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 장

▲원용섭(59/63영문)=2000

고 문

- ▲김성섭(49/53정치)=100
- ▲김유복(47/51정치)=100
- ▲윤입균(67.3/69.2행원)=30
- ▲이민취(52/56정치)=20
- ▲정상영(57/61법학)=10000
- ▲최형우(57/63정치)=20
- ▲황갑순(49/52정치)=50

지도위원

- ▲권오춘(59/61영문)=30
- ▲김재진(58/63경제)=30
- ▲김행남(61/65정치)=30
- ▲문효치(62/66국문)=30
- ▲박은규(59/61정치)=30
- ▲박희부(57/65법학)=30
- ▲배환진(58/62불교)=30
- ▲심경모(57/61영문)=20
- ▲유현목(46/49문학)=30
- ▲이광세(86.3/88.2경원)=30
- ▲이광우(52/56불교)=30
- ▲이석용(54/58정치)=30
- ▲인종식(53/57경제)=30
- ▲정해수(00/49사학)=30
- ▲조재호(61/65불교)=30
- ▲종상삼(86.3/88.2행원)=30
- ▲최규철(64/66정치)=30
- ▲한영휘(56/61경제)=30
- ▲허천택(56/61영문)=30
- ▲현성스님(72.3/73.2행원)=30
- ▲해충스님(69/72불교)=30
- ▲홍성숙(61/65불교)=30

부회장

- ▲송석환(64/68농경)=100
- ▲강병국(64/68농경)=100
- ▲구재태(63/67경행)=100
- ▲권석충(63/70정치)=100
- ▲김규태(93.9/95.8행원)=100
- ▲김대우(65/74 경영)=100
- ▲김동식(80/85정치)=100
- ▲김문영(64/69상학)=100
- ▲김성재(58/63정치)=100
- ▲김승유(63/67정치)=100
- ▲김영환(58/62경제)=100
- ▲김영희(60/63법학)=100
- ▲김재기(56/60경제)=100
- ▲김재술(64/74농학)=100
- ▲김재응(65/69경영)=100
- ▲김진문(64/71경영)=100
- ▲김진선(71/74행정)=100
- ▲김희국(68/72법학)=100
- ▲명성스님(64/68불교)=100
- ▲민병취(63/67상학)=100
- ▲박공서(88.3/90.8행원)=100
- ▲박도근(61/65상학)=100
- ▲박상규(59/61국문)=100
- ▲박종윤(56/59경제)=100
- ▲박진수(59/63국문)=100
- ▲배시영(58/63경제)=100
- ▲백문기(60/63법학)=100
- ▲법조스님(70/73불교)=100
- ▲법타스님(67/74인철)=100
- ▲보광스님(71/75불교)=100
- ▲서승삼(71/78경제)=100
- ▲서영준(64/68법학)=100
- ▲서정호(71/76경영)=100
- ▲선득 해자스님(96.9/98.8불원)=100
- ▲성국스님(74/01체교)=100
- ▲성웅스님(91.3/93.2불원)=100

- ▲성월스님(92.3/94.2불원)=100
- ▲순화중(65/69농경)=100
- ▲순현수(85.3/86.2행원)=100
- ▲송영인(63/67통계)=30
- ▲심호명(98.9/01.8국원)=100
- ▲안민동(81.3/83.2 행원)=100
- ▲안보순(89.3/91.2행원)=100
- ▲여익구(67/94사학)=100
- ▲염준근(67/71통계)=20
- ▲오진모(57/61법학)=100
- ▲우순이(55/60정치)=50
- ▲유광진(60/64정치)=100
- ▲유병완(64/68상학)=100
- ▲유영수(62/66행정)=100
- ▲윤부성(61/63생물)=100
- ▲이광호(74/79행정)=100
- ▲이두철(89.3/91.2사원)=200
- ▲이상선(72/76법학)=100
- ▲이상진(96.3/98.8일원)=100
- ▲이운영(66/70농학)=100
- ▲이재형(64/68불교)=100
- ▲이제근(64/68경제)=100
- ▲이황우(63/67경행)=100
- ▲임승관(61/65행정)=20
- ▲장장순(58/65법학)=100
- ▲전순표(53/57농학)=100
- ▲전영화(65/69경행)=100
- ▲정동일(01/05경영)=100
- ▲정부자(93.3/95.2행원)=100
- ▲정인익(55/60화학)=100
- ▲정진태(00.9/02.8행원)=100
- ▲정현화(64/66상학)=100
- ▲조규(75.3/77.2경원)=100
- ▲조문영(56/60법학)=100
- ▲조은구(64/68경제)=100
- ▲조희영(59/63경영)=100
- ▲지흥재(53/58경제)=30
- ▲차준은(64/68경영)=100
- ▲채규민(58/75정치)=100
- ▲최창선(64/71경영)=100
- ▲한우삼(63/69농학)=100
- ▲형종호(56/61법학)=100
- ▲홍영춘(61/65불교)=100
- ▲홍치유(58/63물리)=100
- ▲홍파스님(63/67불교)=100
- ▲황영수(64/70경제)=100

감 사

- ▲박상호(64/68법학)=100
- ▲심현식(59/63상학)=10

운영위원

- ▲공진식(57/61경제)=100
- ▲김용구(67/71농학)=100
- ▲김윤복(91.3/93.2행원)=100
- ▲김재경(57/61경제)=100
- ▲성각스님(97.3/99.2예원)=100
- ▲조성윤(52/56경제)=100

분과위원장

▲김오현(76/80체교)=50

상무이사

- ▲강성윤(63/67행정)=20
- ▲구연식(87.9/90.2교원)=20
- ▲국기일(58/63경제)=20
- ▲권찬혁(59/63상학)=20
- ▲권혁조(62/66정치)=20
- ▲김건식(54/58정치)=20
- ▲김경남(60/66정치)=20
- ▲김교근(59/65경영)=20
- ▲김기권(59/63불교)=20
- ▲김대식(66/70통계)=20
- ▲김동성(73/81정치)=20

- ▲김민진(90.3/92.2경원)=20
- ▲김문재(96.3/98.8행원)=20
- ▲김병기(90.3/91.2사원)=20
- ▲김보현(91.9/93.8불원)=20
- ▲김사홍(79.3/80.2행원)=20
- ▲김삼현(59/65불교)=20
- ▲김선근(65/69인철)=20
- ▲김성수(64/68경행)=20
- ▲김성식(60/64농경)=20
- ▲김세준(71/75화학)=20
- ▲김수철(58/75경제)=20
- ▲김영순(65/69화학)=20
- ▲김영준(66/70행정)=20
- ▲김용구(70/74농경)=20
- ▲김용길(61/65법학)=20
- ▲김용모(57/59경제)=20
- ▲김원복(59/61영문)=20
- ▲김원창(64/71경제)=20
- ▲김윤식(62/66식공)=20
- ▲김재문(66/70법학)=20
- ▲김정화(58/64경제)=20
- ▲김종우(66/70경행)=20
- ▲김진찬(64/68경행)=20
- ▲김춘호(69/76전자)=20
- ▲김충석(61/63상학)=40
- ▲김형태(61/65불교)=20
- ▲김환배(68/72연료공학)=20
- ▲김흥우(60/64영영)=20
- ▲덕산스님(00.3/02불원)=20
- ▲류승희(65/72경영)=20
- ▲류재선(66/70농경)=20
- ▲맹용재(86.9/88.8행원)=20
- ▲박남규(64/69행정)=20
- ▲박명순(64/68불교)=20
- ▲박부업(59/63상학)=20
- ▲박삼선(51/55법학)=20
- ▲박세훈(70/77화공)=20
- ▲박진숙(72/76가교)=20
- ▲박효령(76/83경행)=20
- ▲방조원(77.9/78.8행원)=20
- ▲백한이(95.3/97.2예원)=20
- ▲법운스님(95.3/불원)=20
- ▲서동호(60/66법학)=20
- ▲서진규(64/71법학)=20
- ▲성나흔(82.9/83.8행원)=20
- ▲성백행(62/66경영)=20
- ▲송영근(80/88영문)=2
- ▲신규현(75/79식공)=20
- ▲신정철(63/67경영)=20
- ▲신준선(71.9/72.8행원)=20
- ▲심재익(59/64농학)=20
- ▲안명근(65/69농학)=20
- ▲안성찬(98.3/00.2일원)=20
- ▲안종진(51/59영문)=20
- ▲어운경(63/67정치)=20
- ▲어재식(68/75무역)=20
- ▲여운응(61/65법학)=20
- ▲오대영(62/66식공)=20
- ▲육기동(61/65식공)=20
- ▲윤대섭(59/63경제)=20
- ▲윤성영(59/63상학)=20
- ▲윤세철(61/70국문)=20
- ▲윤용숙(93.3/95.2불원)=20
- ▲이경석(67/71도공)=20
- ▲이경호(83.9/86.3일원)=20
- ▲이도련(65/69화학)=20
- ▲이명재(65/69정치)=20
- ▲이병규(66/73농학)=20
- ▲이병곤(99.3/01.2행원)=20
- ▲이세준(60/64정치)=20
- ▲이승영(64/68상학)=10
- ▲이신백(70/75농학)=20
- ▲이연석(66/74경행)=20
- ▲이영훈(64/68경제)=20

- ▲이윤호(74/78경행)=20
- ▲이인정(65/72상학)=20
- ▲이재호(79.3/81.2경원)=20
- ▲이재환(98.9/99.8사원)=20
- ▲이호만(59/64정치)=20
- ▲이흥태(95.9/98.2행원)=20
- ▲임규영(68/75경제)=20
- ▲임역빈(67/72경영)=20
- ▲자용스님(91.3/93.2불원)=20
- ▲장세균(67/72철학)=20
- ▲장수정(63/67인철)=20
- ▲장용철(60/66농학)=20
- ▲정광시(79.9/82.2경원)=20
- ▲정대진(59/63법학)=20
- ▲정동호(72/77정치)=20
- ▲정병립(84.3/86.8행원)=20
- ▲정성채(61/67법학)=20
- ▲정연수(70/74과교)=20
- ▲정용길(63/67행정)=20
- ▲정우식(88/93철학)=20
- ▲정재기(64/68정치)=20
- ▲정치현(79/85한외)=20
- ▲정환민(65/69농학)=20
- ▲조국형(58/62정치)=20
- ▲조순익(65/69법학)=20
- ▲조일성(58/66국문)=20
- ▲조정립(70/74교분자)=20
- ▲조창현(64/68경행)=20
- ▲조봉원(94.9/97.2정원)=20
- ▲조희재(63/67식공)=20
- ▲지만호(87.3/94.2행원)=20
- ▲차중근(64/68상학)=20
- ▲최덕현(59/63생물)=20
- ▲최명재(57/61영문)=20
- ▲최병식(59/64불교)=20
- ▲최석(57/61영문)=20
- ▲최영철(95.3/97.2불원)=20
- ▲태진스님(96.3/99.8일원)=20
- ▲한창호(66/70경행)=20
- ▲허길남(63/67응생)=20
- ▲홍석표(75/82경영)=20
- ▲홍선기(69/73정치)=20
- ▲황경환(87.3/89.8교원)=20
- ▲황길원(95.9/98.2행원)=20

이 사

- ▲강경순(92.9/93.8경원)=10
- ▲강석민(82/89경제)=10
- ▲강희석(97/00호텔경영)=10
- ▲고천석(76/83정치)=10
- ▲고호석(77/84공경)=10
- ▲곽재영(55/59국문)=10
- ▲권수구(75/82국문)=20
- ▲권연옥(72.3/75.2행원)=10
- ▲권중원(64/68상학)=10
- ▲권태업(81/85사학)=10
- ▲길육(70.9/72.8행원)=10
- ▲김경일(64/71경제)=10
- ▲김계성(78/81승가)=10
- ▲김관수(63/66행정)=20
- ▲김기환(68/72위생)=10
- ▲김낙돌(64/71경제)=10
- ▲김덕현(71/75농학)=10
- ▲김동길(93.3/95.2경원)=10
- ▲김동욱(89/96정치)=10
- ▲김동일(85/92경영)=6
- ▲김동환(03.8/06행원)=10
- ▲김대동(80.3/81.2행원)=10
- ▲김만석(65/72화학)=10
- ▲김명수(68/70행정)=10
- ▲김명희(85/89미술)=10
- ▲김문겸(64/68농경)=20
- ▲김병우(65/69응생)=10
- ▲김병호(68/72법학)=10

- ▲김보열(57/62경제)=10
- ▲김봉춘(61/65정치)=10
- ▲김삼철(63/67농학)=10
- ▲김석희(57/63법학)=10
- ▲김성권(80/83경행)=10
- ▲김성보(58/63법학)=10
- ▲김성용(73/77경행)=10
- ▲김성일(67/73경행)=10
- ▲김성환(78/82체교)=10
- ▲김성환(67/71도시)=10
- ▲김수광(61/65철학)=10
- ▲김수창(65/69불교)=10
- ▲김승기(65/69경영)=10
- ▲김승기(69/73경영)=20
- ▲김영린(64/77법학)=10
- ▲김영환(63/67정치)=10
- ▲김영희(71/79식공)=10
- ▲김옥경(64/68응생)=10
- ▲김완식(64/71농학)=10
- ▲김용수(59/63상학)=10
- ▲김용태(63/67식공)=10
- ▲김용해(77/81체교)=10
- ▲김운탁(98.3/99.2사원)=10
- ▲김원상(67/71연료공)=10
- ▲김월환(54/58법학)=10
- ▲김윤경(59/63법학)=10
- ▲김윤종(66/73정치)=10
- ▲김인순(80.3/81.2경원)=10
- ▲김재홍(56/60경제)=10
- ▲김정근(95/02법학)=10
- ▲김정규(64/71상학)=10
- ▲김정길(63/68인철)=10
- ▲김정만(63/67정치)=10
- ▲김정환(75.3/77.2경원)=10
- ▲김중찬(94/97경영)=10
- ▲김중찬(82/90교육)=10
- ▲김중철(66/70통계)=10
- ▲김주자(61/65철학)=10
- ▲김진(71/75농경)=10
- ▲김진길(72/78행정)=10
- ▲김진익(73/80경영)=10
- ▲김진용(58/65경제)=10
- ▲김창기(95.9/97.8경원)=10
- ▲김창환(65/67경영)=10
- ▲김창희(74/78수학)=10
- ▲김철규(84.3/86.2경원)=10
- ▲김태홍(92/93행원)=10
- ▲김태연(66/70인철)=10
- ▲김태원(72/77체교)=10
- ▲김태홍(64/68농학)=10
- ▲김창기(68/72정치)=10
- ▲김한주(67.9/77.2일원)=10
- ▲김혁배(65/69응생)=10
- ▲김현권(64/71경제)=10
- ▲김호겸(81/88전기)=20
- ▲김홍찬(57/63법학)=10
- ▲나병용(77/82법학)=10
- ▲남재우(65/69경영)=10
- ▲남정현(81.9/83.8행원)=10
- ▲노재덕(76/83국교)=10
- ▲노주혁(75/82응생)=10
- ▲류복수(95.3/96.2사원)=10
- ▲류홍식(59/65법학)=10
- ▲모경용(64/68응생)=10
- ▲무열스님(92.9/94.8불원)=10
- ▲문준수(69/74인철)=10
- ▲문찬식(73/78화공)=10
- ▲문한성(79/83법학)=10
- ▲민경봉(60/64법학)=10
- ▲민흥기(68/72법학)=10
- ▲박기덕(69/73경행)=10
- ▲박낙원(57/61정치)=10
- ▲박명국(76/83체교)=10
- ▲박복식(57/60법학)=10

- ▲박봉선(60/66경제)=10
- ▲박삼량(67/69상학)=10
- ▲박상문(64/66국문)=10
- ▲박상백(96.3/97.2사원)=10
- ▲박수열(89.9/91.8행원)=10
- ▲박수철(53/57인철)=10
- ▲박영동(76/80불교)=2
- ▲박오순(74/79법학)=10
- ▲박오영(72/76정치)=10
- ▲박옥임(88.9/89.8행원)=10
- ▲박원호(65/69식공)=10
- ▲박일상(70/77국문)=10
- ▲박전호(73/77식공)=10
- ▲박정준(91.3/93.2행원)=10
- ▲박종국(73/81경행)=20
- ▲박종재(92/94경영)=10
- ▲박종원(72/79행정)=10
- ▲박종환(72/76승가)=10
- ▲박진령(82/88한외)=10
- ▲박찬현(62/66경제)=10
- ▲박하서(97.9/01.2사원)=10
- ▲박학수(64/68경영)=10
- ▲박한수(86/90영문)=10
- ▲박현기(98.9/01.2행원)=10
- ▲박형봉(70/77전자)=10
- ▲박형삼(71/75전자)=10
- ▲박흥서(68/72통계)=12
- ▲방재홍(80.3/81.2경원)=10
- ▲배영민(68/72식공)=10
- ▲배진환(87/91미술)=10
- ▲백기범(82/88한외)=10
- ▲백우현(66/70화학)=10
- ▲백주홍(59/63법학)=10
- ▲변태원(61/63법학)=10
- ▲부충식(63/70경제)=10
- ▲서동부(92.3/93.2사원)=10
- ▲서정원(62/66경제)=10
- ▲석명수(72.3/74.2행원)=10
- ▲성동민(85.3/87.8교원)=10
- ▲성순경(81.3/83.2경원)=10
- ▲손문영(69/73수공)=10
- ▲손일환(93.9/94.8사원)=10
- ▲손창수(81/87한외)=20
- ▲손한권(79/83경제)=10
- ▲송용식(58/64경제)=10
- ▲송정식(59/63상학)=10
- ▲신명식(95.3/97.2정원)=10
- ▲신수길(63/67경제)=10
- ▲신준호(61/64경제)=10
- ▲신춘준(73/77행정)=10
- ▲신현태(54/57경제)=10
- ▲신형철(77/81체교)=30
- ▲신희철(64/68상학)=10
- ▲신화섭(84/92화학)=10
- ▲심춘식(57/61정치)=10
- ▲심현설(63/65경제)=10
- ▲안경수(59/63상학)=10
- ▲안규호(97.9/98.8사원)=10
- ▲안병국(71/75건축)=10
- ▲안병민(68/72도공)=10
- ▲안병창(59/63상학)=10
- ▲양수성(61/65경영)=10
- ▲양승조(59/62경제)=10
- ▲양영훈(64/67경영)=10
- ▲어재화(71/75체교)=10
- ▲엄만용(71/75건축)=10
- ▲오경종(66/76경행)=10
- ▲오경택(74/78토목)=10
- ▲오금동(81/85영문)=10
- ▲오운상(65/74국문)=10
- ▲오택원(73/77국문)=10
- ▲우종환(84/88회계)=10
- ▲우해섭(69/77토목)=10
- ▲원용근(64/71경제)=10

▲위중성(64/71농경)=10
 ▲유문희(65/69시공)=10
 ▲유정우(58/63법학)=10
 ▲유종희(61/65농경)=10
 ▲유지원(65/69응생)=10
 ▲유창섭(60/65행정)=10
 ▲윤극서(72/76농학)=10
 ▲윤두욱(59/63생물)=10
 ▲윤만진(96경원)=10
 ▲윤여달(64/68법학)=10
 ▲윤영창(63/67국문)=10
 ▲윤인상(65/72경영)=10
 ▲윤종필(83/87사회개발)=10
 ▲윤택(61/66경제)=10
 ▲이경구(58/65법학)=10
 ▲이경범(65/69경행)=10
 ▲이경희(64/71법학)=10
 ▲이규철(63/71경제)=10
 ▲이기주(70/77체교)=10
 ▲이덕원(68/72사학)=10
 ▲이동우(56/61법학)=10
 ▲이동익(78/82농학)=10
 ▲이동철(69/73경영)=10
 ▲이두진(73/77정의)=10
 ▲이상률(53/57법학)=10
 ▲이상민(68.3/69.8행원)=10
 ▲이상재(73/80국사교육)=10
 ▲이상평(62/66영문)=10
 ▲이서행(67/71철학)=10
 ▲이석우(63/71행정)=10
 ▲이영구(64/68불교)=10
 ▲이영균(68/72도공)=10
 ▲이영길(64/73농생)=10
 ▲이영안(65/69경영)=10
 ▲이영흠(77.9/79.8경원)=10
 ▲이용훈(72/77농생)=10
 ▲이원식(66/70물리)=10
 ▲이은기(73/77법학)=10
 ▲이재수(87.3/89.8경원)=10
 ▲이재영(74/81경행)=10
 ▲이재용(64/71상학)=10
 ▲이전구(96.9/99.8산원)=10
 ▲이정길(59/64경제)=10
 ▲이정일(62/69사학)=10
 ▲이정주(64/71농경)=10
 ▲이제근(69/73경제)=10
 ▲이종관(63/67통계)=10
 ▲이종수(63/67상학)=10
 ▲이준표(71/75정의)=10
 ▲이창영(61/65법학)=10
 ▲이천기(64/68농경)=10
 ▲이철중(77/81토목)=10
 ▲이청수(87/91산공)=10
 ▲이청준(67/71경행)=10
 ▲이춘필(99.3/01.2불원)=10
 ▲이출재(97.9/00.2산원)=10
 ▲이풍길(61/65경영)=10
 ▲이필영(63/71사학)=10
 ▲이학승(78/82불교)=10
 ▲이한우(83.3/84.2교원)=10
 ▲이해영(65/69경영)=10
 ▲이향주(69/73사교)=10
 ▲이현경(92.9/95.2행원)=10
 ▲이현호(66/70법학)=2
 ▲이형남(73/77체교)=10
 ▲이호영(92.3/93.2사원)=10
 ▲이홍섭(80/84회계)=10
 ▲이환규(66/70행정)=10
 ▲이희경(68/75경행)=10
 ▲임경식(56/60입학)=10
 ▲임수근(66/74경행)=10
 ▲임식(73/77체교)=10
 ▲임영신(53/57경제)=10
 ▲임재화(71/75수교)=10
 ▲임창수(95.3/96.2사원)=10
 ▲장구한(91.9/93.2불원)=10
 ▲장근도(59/65경제)=10
 ▲장대진(89/95정의)=10
 ▲장민수(72/77농경)=10
 ▲장적스님(85/90산학)=10
 ▲장정배(86/91정의)=10
 ▲장호근(67/74통계)=10
 ▲전석한(99.3/01.8행원)=10
 ▲전신섭(89.3/91.2경원)=10

▲전원길(63/67통계)=10
 ▲전진표(60/64입학)=10
 ▲정광훈(65/69상학)=10
 ▲정규호(64/68응생)=10
 ▲정기섭(64/68행정)=10
 ▲정낙진(81.9/83.8행원)=10
 ▲정만진(74/78법학)=10
 ▲정민용(00/49전문)=10
 ▲정범스님(88/92경행)=10
 ▲정의섭(70/77농경)=10
 ▲정준호(95.9/97.8행원)=10
 ▲정중호(73/77무역)=10
 ▲정태진(94불원)=10
 ▲정하성(67/71상학)=10
 ▲정한영(64/68농경)=10
 ▲정희식(77/81지교)=10
 ▲조규진(93.3/95.2경원)=10
 ▲조석규(68/72수자원공학)=10
 ▲조인(65/69법학)=10
 ▲조정곤(59/62법학)=10
 ▲조종진(54/58정치)=10
 ▲조창원(55/57경제)=10
 ▲조태호(59/63경영)=10
 ▲조항태(60/63법학)=10
 ▲조현수(60/64농경)=10
 ▲조흥기(58/63영문)=10
 ▲조희수(69/73행정)=10
 ▲지재성(78/83공경)=10
 ▲지재성(60/67정의)=10
 ▲진창훈(66/70상학)=10
 ▲차영구(57/59경제)=20
 ▲차영근(76/80화학)=10
 ▲최광화(72/79경영)=10
 ▲최탁상(71/75전기)=2
 ▲최병곤(84.9/86.8경원)=10
 ▲최세화(48/56국문)=10
 ▲최영식(81/02국문)=10
 ▲최용환(63/67농학)=10
 ▲최인(64/68상학)=10
 ▲최종욱(59/63경제)=10
 ▲최준영(92.9/94.8산원)=10
 ▲최창영(61/67법학)=10
 ▲최창윤(94.9/97.2일원)=10
 ▲편영배(92.9/94.8산원)=10
 ▲하진수(61/65정의)=10
 ▲한강택(72/79경행)=10
 ▲한규범(78.9/80.8경원)=10
 ▲한대현(89.9/91.8경원)=10
 ▲한동식(99.9/00.8사원)=10
 ▲한성규(65/69물리)=10
 ▲한세기(61/67행정)=10
 ▲한운섭(68/72경영)=10
 ▲한태수(84/90한외)=10
 ▲허남태(79/87조경)=10
 ▲허증(64/68상학)=2
 ▲현종스님(05.3/불원)=10
 ▲현학진(86/90경제)=10
 ▲홍성표(67/71도공)=10
 ▲홍순원(67/71경행)=10
 ▲홍우동(83.3/83.8경원)=10
 ▲황기석(99.3/00.2사원)=10
 ▲황성준(74/78법학)=10
 ▲황영남(80/84국교)=10

일반회원

▲강성권(01수학)=2
 ▲강전희(81경원)=2
 ▲강태균(68경제)=2
 ▲강태은(87행원)=2
 ▲고민수(73농경)=2
 ▲고창용(96불원)=2
 ▲공기태(86화공)=2
 ▲공영대(82화학)=2
 ▲공영두(행원)=2
 ▲곽상춘(92인원)=2
 ▲곽영철(94행원)=2
 ▲구자관(93행원)=2
 ▲권나리(99역교)=2
 ▲권오진(88회계)=2
 ▲권응창(85국문)=2
 ▲권하나(04중문)=2
 ▲김경남(72국문)=2
 ▲김경복(05행원)=2
 ▲김경수(74행정)=2
 ▲김경자(00영문)=2

▲김경자(91경원)=2
 ▲김경준(행원99)=2
 ▲김계성(87영문)=2
 ▲김기수(96행원)=2
 ▲김기현(84역교)=2
 ▲김기훈(04불원)=2
 ▲김남근(72상학)=2
 ▲김덕영(91정원)=2
 ▲김덕진(94불교)=2
 ▲김동래(74화공)=2
 ▲김동익(65시공)=2
 ▲김만섭(72법학)=3
 ▲김명석(92정의)=2
 ▲김명희(77가교)=2
 ▲김문식(98행원)=2
 ▲김민경(95수교)=2
 ▲김병운(85경원)=2
 ▲김병택(77일원)=2
 ▲김부남(70시공)=2
 ▲김상민(99생물)=2
 ▲김상철(94산원)=2
 ▲김선명(61법학)=2
 ▲김선일(78미술)=2
 ▲김선환(06행원)=2
 ▲김성규(60경제)=2
 ▲김수정(97수교)=2
 ▲김시현(65입학)=2
 ▲김실(62입학)=2
 ▲김영겸(82산공)=2
 ▲김영모(95국교)=2
 ▲김영민(91법학)=2
 ▲김영운(84교육)=2
 ▲김옥경(87국문)=2
 ▲김용미(06회계)=2
 ▲김용선(77사교)=2
 ▲김용임(87윤리)=2
 ▲김용호(94지원)=2
 ▲김웅(88한문)=2
 ▲김원호(73시공)=2
 ▲김유조(70법학)=2
 ▲김윤경(01불교)=2
 ▲김윤기(71입학)=2
 ▲김은경(96국교)=2
 ▲김인택(96불원)=2
 ▲김인호(01국원)=2
 ▲김일(88수교)=2
 ▲김임주(66상학)=2
 ▲김재욱(96수교)=2
 ▲김재운(97체교)=2
 ▲김재현(96윤리)=2
 ▲김종익(00/01불원)=2
 ▲김종한(02교원)=2
 ▲김진수(99사원)=2
 ▲김진홍(79행원)=2
 ▲김창겸(78영문)=2
 ▲김창호(04행원)=2
 ▲김춘생(91행원)=2
 ▲김치국(65법학)=2
 ▲김치영(04회계)=2
 ▲김필건(88한외)=2
 ▲김학기(80경원)=2
 ▲김학준(84국교)=2
 ▲김한승(07국제통상)=2
 ▲김형중(82불교)=2
 ▲김호성(01문원)=2
 ▲김화실(78수학)=2
 ▲김휘국(86행원)=2
 ▲김희석(83행원)=2
 ▲남계동(71입학)=2
 ▲남금광(69상학)=2
 ▲남명숙(94불원)=2
 ▲남상돈(91수교)=2
 ▲노영대(01문원)=2
 ▲노중철(84법학)=2
 ▲동명희(87생물)=2
 ▲무학사()=2
 ▲문경식(94경원)=2
 ▲문명은(86국교)=2
 ▲문병항(58법학)=2
 ▲문진환(74국교)=2
 ▲민병천(86산공)=2
 ▲박광래(61경제)=2
 ▲박광열(98경원)=2
 ▲박규태(91일문)=2

▲박기석(88경영)=2
 ▲박대은(97사원)=2
 ▲박두영(88농경)=2
 ▲박두호(67경행)=2
 ▲박병국(02일원)=2
 ▲박병정(82행원)=2
 ▲박병준(90건축)=2
 ▲박병태(00행원)=2
 ▲박상욱(96법학)=2
 ▲박상재(91행정)=2
 ▲박성해(63법학)=2
 ▲박수경(83수교)=2
 ▲박수명(72자동차어)=2
 ▲박수천(77행정)=2
 ▲박영무(64법학)=2
 ▲박옥화(05경원)=2
 ▲박장욱(80수학)=2
 ▲박정일(00국문)=2
 ▲박종부(81국교)=2
 ▲박종수(05행원)=2
 ▲박주하(72응생)=2
 ▲박지원(58경제)=2
 ▲박형정(89지교)=2
 ▲배동운(85경영)=2
 ▲배병기(98행원)=2
 ▲배영주(82산공)=2
 ▲배주환(79전기)=2
 ▲백승운(91경영)=2
 ▲백운대(81행원)=2
 ▲변봉현(71전자)=2
 ▲서건석(65상학)=2
 ▲서동일(91경행)=2
 ▲서동해(96사원)=2
 ▲서승오(61법학)=2
 ▲서윤하(90법학)=2
 ▲서진택(78체교)=2
 ▲서행원(83역교)=2
 ▲선은호(03화학)=2
 ▲성기민(87경원)=2
 ▲손석창(86법학)=2
 ▲손정희(01인원)=2
 ▲손호중(93행원)=2
 ▲송대경(85화학)=2
 ▲송부용(82농경)=2
 ▲송영복(75행원)=2
 ▲신개복(90역교)=2
 ▲신동기(05행원)=2
 ▲신완철(행원03入)=2
 ▲신원식(63영문)=2
 ▲신현숙(83일원)=2
 ▲심병기(60법학)=2
 ▲심성보(04일원)=2
 ▲심재형(02행원)=2
 ▲안명수(75국교)=2
 ▲안병욱(75토목)=2
 ▲안영균()=2
 ▲안영균(87무역)=2
 ▲안정은(02행정)=2
 ▲안주희(85불교)=2
 ▲안한상(69국문)=2
 ▲안형영(82전자)=2
 ▲안흥태(95행원)=2
 ▲안희백(78토목)=2
 ▲양운정(01일원)=2
 ▲엄정식(96수교)=2
 ▲엄종호(60법학)=2
 ▲엄진상(72법학)=2
 ▲오명석(90경원)=2
 ▲오부순(05불원)=2
 ▲오영석(87농학)=2
 ▲오인순(72국문)=2
 ▲왕덕운(93한외)=2
 ▲우인보(88불교)=2
 ▲유세희(92농생)=2
 ▲유준열(85경영)=2
 ▲유환식(57경제)=2
 ▲윤석원(89교원)=2
 ▲윤성덕(97검공)=2
 ▲윤성용(85행원)=2
 ▲윤주천(84토목)=2
 ▲윤태평(70농경)=2
 ▲윤현애(99가교)=2
 ▲윤혜영(77국교)=2
 ▲윤홍열(51영문)=2
 ▲은선사(사찰)=2

▲이경훈(52경제)=2
 ▲이광섭(69상학)=2
 ▲이규나(83행원)=2
 ▲이근(98불원)=2
 ▲이기근(83수학)=2
 ▲이덕성(57법학)=2
 ▲이동근(00국교)=2
 ▲이명호(58영문)=2
 ▲이명인(85한외)=2
 ▲이민식()=2
 ▲이법준(99화학)=2
 ▲이병국(73경행)=2
 ▲이병철(95지교)=2
 ▲이봉근(60법학)=2
 ▲이부익(96사원)=2
 ▲이상연(93불원)=2
 ▲이상일(71시공)=2
 ▲이상철(78토목)=2
 ▲이상철(58입학)=2
 ▲이선래(96행원)=2
 ▲이애숙(77가교)=2
 ▲이연숙(82사교)=2
 ▲이영범(89농학)=2
 ▲이영찬(74농학)=2
 ▲이영환(96교원)=2
 ▲이외순(94경원)=2
 ▲이용국(78경영)=2
 ▲이용재(71입학)=2
 ▲이운정(96한외)=2
 ▲이익하(73법학)=2
 ▲이일환(89행원)=2
 ▲이재영(93수학)=2
 ▲이재항(71경제)=2
 ▲이재현(02수교)=2
 ▲이재호(01행원)=2
 ▲이점원(79미술)=2
 ▲이정순(84경행)=2
 ▲이정훈(64법학)=2
 ▲이정훈(01건축)=2
 ▲이중서(75법학)=2
 ▲이중원(69시공)=2
 ▲이준걸(94행원)=2
 ▲이준복(93행원)=2
 ▲이준호(81화공)=2
 ▲이중범(97경원)=2
 ▲이지은(99영문)=2
 ▲이진석(87교원)=2
 ▲이진욱(98법학)=2
 ▲이창근(76체교)=2
 ▲이창수(87회계)=2
 ▲이창주(84통계)=2
 ▲이철은(88교원)=2
 ▲이중철(84물리)=2
 ▲이종규(64법학)=2
 ▲이학주(88불교)=2
 ▲이현수(61입학)=2
 ▲이혜주(00역교)=2
 ▲이훈(89수학)=2
 ▲이희각(57법학)=2
 ▲임상선(03국교)=2
 ▲임신철(65입학)=2
 ▲임인규(78)=2
 ▲임인규(81승가)=2
 ▲임창빈(98경원)=2
 ▲임현경(76농경)=2
 ▲장규운(03행원)=2
 ▲장기환(98윤리)=2
 ▲장대봉(97불원)=2
 ▲장명수(03사원)=2
 ▲장승수(91정원)=2
 ▲장안사(사찰)()=2
 ▲장영집(89경원)=2
 ▲장재웅(78문과)=2
 ▲장정숙(불원98入)=2
 ▲장희규(79행원)=2
 ▲전덕선(63법학)=2
 ▲전사일(76고분자)=2
 ▲전수식(63법학)=2
 ▲전정란(85생물)=2
 ▲정갑영(81전기)=2
 ▲정대대(88법학)=2
 ▲정기석(59사학)=2
 ▲정기홍(81수교)=2
 ▲정동호(02행원 入)=2
 ▲정부근(98응생)=2

▲정성운(82행정)=2
 ▲정순승(85법학)=2
 ▲정영진(88전산)=2
 ▲정용수(92불원)=2
 ▲정은주(04국교)=2
 ▲정의완(78사교)=2
 ▲정이조(81경원)=2
 ▲정찬일(97국교)=2
 ▲정창수(96교원)=2
 ▲정춘덕(60법학)=2
 ▲정충대(85국교)=2
 ▲정태수(00불원)=2
 ▲정한성(90한외)=2
 ▲정해욱(05사원)=2
 ▲정흥진(불원95入)=2
 ▲조동희(64법학)=2
 ▲조만영(72농학)=2
 ▲조병이(81)=2
 ▲조병이(88경제)=2
 ▲조성환(72행원)=2
 ▲조성현(76농생)=2
 ▲조윤일(97체교)=2
 ▲조원선(06행원)=2
 ▲조재우(98전기)=2
 ▲조정환(03교원)=2
 ▲조철구(72수학)=2
 ▲조한구(70상학)=2
 ▲조희철(57경제)=2
 ▲주정용(00수교)=2
 ▲주희재(85영문)=2
 ▲지경룡(77체교)=2
 ▲지정열(92미술)=2
 ▲진명국(95경원)=2
 ▲진용익(87경원)=2
 ▲진홍식(67법학)=2
 ▲차성환(79전자)=2
 ▲채희석(법학)=2
 ▲천상덕(03일원)=2
 ▲초철봉(93경원)=2
 ▲최병도(00국원)=2
 ▲최병호(05사원)=2
 ▲최상탁(73국교)=2
 ▲최선희(79국교)=2
 ▲최수민(68행원)=2
 ▲최수영(75행원)=2
 ▲최양진(81농경)=2
 ▲최양환(02행원)=2
 ▲최영대(94행원)=2
 ▲최영안(65국문)=2
 ▲최윤수(87한외)=2
 ▲최정수(94영문)=2
 ▲최정욱(85윤리)=2
 ▲최종우(85법학)=2
 ▲최주익(02사원)=2
 ▲최창룡(95경원)=2
 ▲최현자(89행원)=2
 ▲표외숙(80일원)=2
 ▲하위식(88행원)=2
 ▲하지연(02일문)=2
 ▲한도수(61경제)=2
 ▲한백언(74국교)=2
 ▲한은정(99윤리)=2
 ▲한재수(77수교)=2
 ▲한정욱(99체교)=2
 ▲한형숙(85영문)=2
 ▲허건욱(94수학)=2
 ▲허백무(81농생)=2
 ▲허수행(63정치)=2
 ▲현종스님(01불원)=2
 ▲형성훈(06행원)=2
 ▲홍경택(95국문)=2
 ▲홍광표(99행원)=2
 ▲홍동표(95수학)=2
 ▲홍성표(01사원)=2
 ▲홍성하(72응생)=2
 ▲홍효기(73농경)=2
 ▲황길상(88국문)=2
 ▲황봉연(86토목)=2
 ▲황재철(94경원)=2
 ▲황재춘(90행원)=2
 ▲황태현(99한외)=2

동우장학금

▲권오춘(59/61영문)=100